

정색과 정삼의 사랑 이야기

함께라서 더 사랑이 깊어지는 집안일





하늘은 파랗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정색과 정삼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나란히 하루를 시작했어요. 시작은 언제나
싱그럽지만,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의 바람이 솔솔.



정색은 먼지를 툭툭 털며, '어떻게 시작할까?' 살짝 고민했어요.
정삼은 부드럽게 웃으며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고 말했어요.
사랑은 이렇게, 조용히 피어났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시간은 참 즐거웠어요. '설탕을 어디에 넣지?' 정색이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지요. 정삼은 활짝 웃으며 '여기 있지!' 하고 말했어요. 주방엔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들은 식탁을 차리며, '서로 도우니 즐겁네.' 하고 정삼이 속삭였어요. 정색의 마음 한구석이 살랑였어요. 그 순간들이 가장 소중한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둘은 고요한 저녁을 맞이했어요. 정색은 '한 걸음, 두 걸음, 함께하는 게 참 좋아.' 하고 중얼거렸어요. 마음 속 콩닥콩닥, 밤이 더 부드럽게 다가왔어요.



어둠이 짙어지고 가로등이 켜졌어요. 정색과 정삼은 창밖을 보며 '이런 일상이 좋구나.' 하고 조용히 서로를 느꼈어요. 빛은 부드럽게 번졌어요.



창밖에 달이 커다랗게 떠오르고 별들이 춤추듯 나타났어요.
정색은 '행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돼.' 하고 말했어요. 정삼도
고개를 끄덕이며, 달빛아래 미소지었어요.



밤이 깊어지며 그들은 작은 침대에 누워 서로의 온기에 스르르
녹아들었어요. '함께라서 참 고마워.' 하고 정색의 마음이
푸근히 안겼어요. 밤하늘은 조용히, 그리고 푸근히.



끝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세요.

정색과 정삼의 사랑 이야기

글·그림 올레길

© 2026 올레길 · Storypia